

인공지능 그림 '사용자'

202211436 윤하은

I. 서론

우리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이러한 작품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짧다면 짧고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단 하나의 작품을 위해 몰두한다. 더불어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여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술은 인간만의 영역으로 여겨져 인공지능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람이 그린 그림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은 엄청난 기술력과 창의성으로 인간을 능가하는 모습은 놀라움의 연속일 따름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림 7점을 보여주고 어느 그림이 인공지능의 작품인지 물어본 실험이 있었다.¹⁾ 대부분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5점 중 1점만 맞는 결과를 내놓았다. 필자도 이 그림들을 본 결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맞히지 못하였으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람의 그림과 대단한 유사성을 보였다.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A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다. A는 이 그림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까? 최근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오직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미래에는 인공지능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한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림이 1등을 차지하면서 미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다.²⁾ 올해 8월 미국에서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가 열렸다. 제이슨 앨런(Jason M. Allen)은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라는 작품으로 디지털 아트 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 이 작품은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자 할 때 그와 관련된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그림 여러 장을 그려내는 프로그램이다. 앨런은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백 장의 그림을 생성한 후 세 장을 제출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대상을 받은 것이다. 미술대회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공지능 그림 사용자가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저작권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장의 그림이 생성될 정도로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처음 작품이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텍스트를 넣어보고 구도를 바꾸며 원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이렇하다. 인공지능을 붓과 같은 하나의 도구로 인정하여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해도 된다는 측과 인간의 노력과 시간 없이 단시간에 만들어내는 작품은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측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타자 몇 번 두드리고 클릭 몇 번 하면 완성되는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나타나는 문제들은 아래의 본문에서 다루겠다.

1) 한겨레, "어느 그림이 인공지능의 작품일까?", 광노필 기자, 2021.03.01

2) 한겨레, "인공지능 그림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미술전 1위 논란", 광노필 기자, 2022.09.06

II. 본론

2.1 보호받지 못하는 창작자의 권리

인공지능은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창작자의 창작물을 재구성하고 반복하는 딥러닝을 통해 학습하며 나아간다. 우리가 자고 있는 순간과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창작자의 창작물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컴퓨터의 학습능력은 인간의 계산 범위를 초월하므로 이용과정에서 매번 저작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³⁾ 저작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작품을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창작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상황을 직접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은 창작자의 예술적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도 미비하다.

아래는 기사의 한 부분이다. 이는 창작자의 일자리를 위협함과 동시에 상업적 이득을 취함으로써 현직 작가나 이것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미래까지 빼앗기는 것이다. “추상화에서 풍경화, 정물화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이제 역대의 값에 팔릴 정도로 기술 발전을 이뤘다. 2018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선 인공지능 그림이 43만달러(4억8000만원)에 팔려 화제가 됐다. 인공지능 그림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은 그만큼 인공지능의 그림 수준이 높아졌다는 징표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⁴⁾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작가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그림체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인공지능은 수만번 반복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그림 실력은 인간을 능가하고 있다.

2.2 문화 산업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여 높은 수준의 예술작품을 어디에서나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했듯이 그 작품들은 동의하지 않은 타인의 작품을 학습하여 탄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원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윤리의식이 낮아질 것이다. 한끗차이로 다르고 비슷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 문화산업이 붕괴될 상황이 우려된다.

사람들의 저작권 윤리의식이 낮아짐

양산형 콘텐츠의 증가로 인해 문화산업 붕괴

시장경제 붕괴

III. 반론 / 재반론

인공지능이 붓처럼 하나의 예술 창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3) 이양복,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2018.10.26, 370면

4) 한겨레, "어느 그림이 인공지능의 작품일까?", 광노필 기자, 2021.03.01

IV. 결론

미술계에 혼란을 일으키는 인공지능 그림은 이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

V. 참고문헌

한겨레, "어느 그림이 인공지능의 작품일까?", 광노필 기자, 2021.03.01

한겨레, "인공지능 그림 "악마의 영감을 받은 느낌"...미술전 1위 논란", 광노필 기자, 2022.09.06.

이양복,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2018.10.26., 370면

한겨레, "어느 그림이 인공지능의 작품일까?", 광노필 기자, 2021.03.01